

산업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정보센터 설립
각종자료 22만건 DB화 온라인 제공기로

국내의 기업의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정보센터가 설립된다.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은 국내 기업 및 해외기업의 기술정보를 수집, 유통 및 기술중계 알선 상담기능을 수행할 기술이전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기술이전정보센터는 국내 기업간의 기술시장 개척은 물론 미국, 일본 등과의 국제기술 시장도 개척, 기업들이 필요기술을 국내외에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기술정보원은 기술이전정보센터 설치와 함께 온라인 기술정보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 기술정보를 완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일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 과학기술 문헌정보로 국내 산업, 무역, 한국공고 특허 등 10종 22만건을 제작할 예정이다.

DB구축 계획이 완료되면 산업기술정보원은 자체제작 17종 1백60만건에 해외 9종 2천만건의 산업기술관련 정보를 보유, 국내 최대의 정보자료 보유기관이 된다.

생기원, 제지설비국산화 계획 총괄
1차년도 사업계획 확정 추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제지설비 국산화 사업의 1차년도 사업과제가 확정됐다.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상공자원부가 제지설비 국산화를 위해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이 정책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제지설비 시스템인 그레이션 기반 구축 및 수출관련 기술이관 기획과

제를 비롯 고속 제지가공기시스템 등 6개 기술개발과제가 1차년도 사업과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선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정부출연 15억원, 참여업체 출연 11억원 등 모두 26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생기원이 총괄하는 이 사업에는 한일, 코오롱엔지니어링, 신강제지, 신우기계 등 10여개 업체와 서울대, 전남대, 경희대 등 3개대학과 기계공업진흥회가 참여한다.

폐신문이용 복사지 개발
공업기술원, 탈목공법 이용

폐신문지를 사용하여 복사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개발됐다.

국립공업기술원은 최근 화학펠프에 탈목된 폐신문지를 섞어 복사지를 만드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화학펠프와 폐신문지의 혼합비율을 60대 40으로 하고 지면증강제를 함께 섞어 복사지의 백색도와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정무역 신고센터 설치 운영
관세청, 시장동향·유통정보 제보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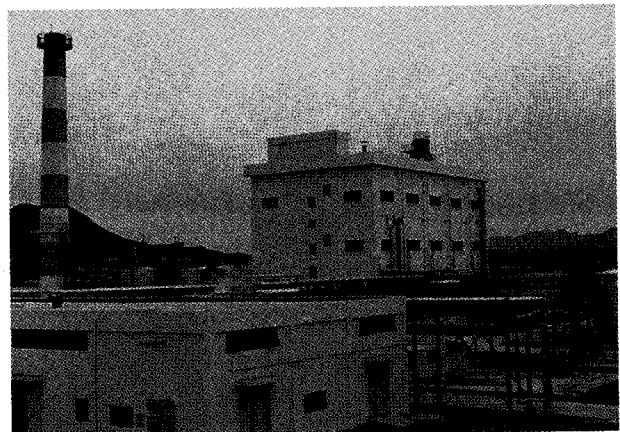
무역 및 외환시장의 개방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부정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부정무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부정무역되는 물품과 동종 또는 경쟁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시장동향 및 유통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이를 수용하여 부정무역의 방지에 노력키로 했다.

부정무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면 ▲저가신고 ▲허위신고 ▲위장수출 및 수출용 원자재 부정수출 ▲부정경쟁 행위 ▲지적 재산권 침해 ▲기타 불법 수출입 및 판매행위 등이다.

미원, 제2수지공장 본격기동
전주3공단 소재, 50여품목 생산

(주)미원(대표 유명학)이 알키드수지와 열경화성 수지 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50여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제2수지공장의 기동에 들어갔다.



▲ (주)미원의 전주 제2수지공장 전경